

낙석 위험 알려도 절벽 밑까지 ‘아찔’ 탐방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자연재해시 낙석우려에도
안내판 외 안전시설 전무
도 “현장점검해 설치 검토”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95호로 지정된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가 낙석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는 절벽 바로 아래 있어 태풍과 자연재해 시 낙석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지만, 낙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은 전무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서귀포시 서홍동 새연교 인근에 위치한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에는 패류화석 등을 관찰하기 위한 탐방객들로 북적였다. 탐방객들은 절벽 바로 밑까지 들어가 화석 등을 관찰하거나 기념촬영에 나서는 등 자유롭게 탐방을 즐기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서는 절벽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대형 바위들과 쓸려 내려온 토사가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인근에는 ‘낙석위험’이라고 쓰인 알림판 이외에는 낙석방지



22일 서귀포시 서홍동 새연교 인근에 위치한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에서 탐방객들이 ‘낙석위험’ 알림판을 넘어 낙석 위험이 있는 절벽 바로 밑까지 들어가 탐방을 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그물망이나 안전모 등 낙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은 단 한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절벽에서 토사가 붕괴하거나 낙석이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곳에서 만난 박모(33)씨는 “주변을 둘러보다 절벽에서부터 흘러내린 토사의 흔적을 보고 불안감을 느껴

패류화석 산지 밖으로 나와버렸다”며 “절벽에 안전시설을 설치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탐방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태풍과 많은 비가 내릴 때에는 절벽에서 낙석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는 서귀포시 남서 해안 절벽에 있는 조개종류의 화석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외에 알려진 화석이다. 1968년에 화석으로서는 최초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제195호로 지정됐으며 2010년에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국가균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모색”

김현미 장관, 국감서 밝혀
강훈식 의원 “공동도급 의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21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에 지방 중소기업이 참여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울)이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 지방 건설경기가 주저앉은 측면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질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연합뉴스

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을 언급하며 “과거 혁신도시 건설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도 중소기업업체가 공동도급 참여를 의무화했는데, 이번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사업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다시 모색하도록 방안을 찾고자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도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가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에 대해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최대 곤충서식지 제주, 곤충산업 중심지로

제주TP 협의체 연구 추진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곤충이 서식하는 제주가 친환경 곤충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될 전망이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이하 제주TP)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지난 18일 연구소 회의실에서 제주곤충산업협회 회원과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곤충사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곤충사육산업과 관련한 농가와 기업들을 연결해 다양한 곤충사육법과 소득창출 방안을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제주가 보유한 곤충을 활용한 곤충산업화를 위해 구성됐다.

곤충은 식품, 의학, 사료, 화장품, 애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 예상되는 식량위기 대안으로 식용곤충이 제시됐다.

특히 제주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DB) 플랫폼에는 제주지역에 서식 또는 분포하고 있는 3702종의 곤충에 대한 정보가 정리돼 곤충을 활용한 식품 등 다양한 소재개발 연구에 제주가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TP와 협의체는 제주 식용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 사육예산 절감을 위한 식용곤충 먹이 발굴 공동연구, 사육곤충에 대한 효능검증 연구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예산 국회 돌입… 道, 국비확보에 발걸음 분주

국회, 내년 예산안 본격 심사
도, 현안 설명 협조 요청 예정

국회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제주 주요 현안 절충과 미반영 예산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부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주 내 예산안 심의 일정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상임위별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원회회를 오는 11

월 11일부터 가동하고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내년 국비보조금을 1조5009억원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일부 주요 현안 예산은 반영되지 못하거나 전액 포함되지 못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증액과 부활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부미현기자

서귀포지역 ‘협치리더’ 퍼실리테이터 양성

YWCA서 수료식… 18명 배출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YWCA는 21일 ‘협치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지역현안과 주민 주도 사업추진 시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협치 퍼실리테이터 18명

을 배출했다.

퍼실리테이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 과정을 설계하고 참여를 유도해 질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 일컫는다.

이번 과정은 협치 리더를 양성하

기 위해 제주도와 서귀포YWCA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 10월부터 21일까지 총 28시간, 7일간의 과정으로 운영됐다. 공개 모집을 통해 도민 22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출석·이수한 18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수료자에게는 ‘퍼실리테이터 자격 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지며, 시험을 통과하면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취

득할 수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양성된 협치 퍼실리테이터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도민원탁회의’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협업으로 제주시 지역에서 ‘협치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을 운영해 23명의 퍼실리테이터를 배출했다.

조상윤기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5년 넘은 아파트 등 710곳

제주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에 나선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12월 23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시설물로 분류된 15년 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710개소를 대상으로 안

전진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의 기둥, 보, 슬라브 등의 균열 여부, 용벽·석축,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 안전취약 분야에 집중한다.

특히,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진단한 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위해 지정·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보수·보강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애크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문의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 제주대 ▲ CGV ▲ 화북 ▲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 혜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하례조생	3년생
병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오하라베니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요목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